

## 文學에 잇서서 倫理와 論理 (3)

金午星

그러나 倫理는 어대까지나 行爲이며 行爲는 理性에서보담 意欲과 感情에서 지어지며, 規範이 行爲를 規定하는것이 아니요 行爲가 온갖 規範을 生産하며 創造하는 것이니, 生産하며 創造하는 倫理的 行爲者에게는 理性主義의 倫理는 한 개의 壓迫이요 非倫理에 지내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理性主義에 對한 反抗이 倫理的 側面에서 일어난 것이다. 로고스(理性)에 反對되는 것은 파토스(激增情熱)이며, 理性主義에 反對되는 것은 非合理主義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今日 文學에서 要求되는 倫理는 파토스의 倫理며 非合理의 倫理라 할 것이다. 그런데 理性이 意識의 對衆的 象面이라면 파토스는 意識의 主體의 象面이라 할 것이다. 理性이 항상 客觀에 充實함과 反對로 파토스는 항상 人間 自體에 充實한 것이다. 그러므로 파토스의 倫理는 主體의 倫理인 것이다. 理性的 倫理가 客觀的 規範으로서 人間을 壓迫하는 沒人間的 倫理라면, 파토스의 倫理는 언제나 人間을 辯護하며 人間에 依하여 客觀을 規定하려는 人間的인 倫理라 할 수 잇는 것이다. 主體의 倫理를 가장 意識的으로 把握한 사람은 게르케골[키에르케고르]이라 할 수 잇다. 게르케골에 依하면 참으로의 眞實은 主觀性이다. 그가 말하는 主觀性은 知識의 主觀性이 아니고 倫理의 主觀性임은 두말할 것도 업다. 『個人的 倫理的 現實이 唯一의 現實이다.』

그런데 이러한 現實은 어떤 倫理에 依하여 指定되는 것이 아니고 『個人的 生の 歷史는 한 狀態에서 달은 한 狀態에의 運動에서 進展되며, 各個의 狀態는 한 개의 飛躍에서 指定하는 現實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두 狀態의 運動에서 指定된 두 瞬間 새에는 어떤 科學도 說明할 수 업는 辯證法的 飛躍이 잇는 것이니, 內的 生은 이러한 瞬間의 飛躍性에 따라 참다운 現實을 가진다는 것이다. 瞬間에서 瞬間으로 非連續的으로 飛躍하는 것이 倫理的 主觀의 山 面貌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倫理的 生은 客觀對象과 가티 理性에 依하여 論證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파토스(激情, 情熱)에 依하여 나타나는 것이니, 人間の 主體性은 파토스에 잇스며 파토스가 倫理의 固有한 場面이란 것이다. 倫理는 認識이 아니라 行爲이며, 行爲는 瞬間에서 瞬間으로 發展하는

것이니 항상 새로운 現實을 맨드려 내는 것이 倫理的 行爲의 主眼인 것이다. 그러므로 理性은 항상 對象에 執着하는 反對로 과토스는 항상 無對象의인 生成에 立脚하는 것이다. 理性主義 倫理가 認識과 命令에 基礎를 둔 反對로 非合理主義 倫理는 항상 創造와 先驗的인 것을 主眼으로 하는 것이다. 文學은 論證이 아니라 描寫며 認識이 아니라 創作이다.